

나는 누구일까?

안녕? 나는 지렁이의 친구야! 땅위에 사는 모든 생물의 터전이기도 하지 내가 없으면 사람들은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아래에서 내 이름을 찾고 빈칸에 나를 예쁘게 그려줘

알쏭달쏭 미로찿기



영차!영차!

지렁이가 흙을 찾아 여행을 떠나려해요.

지렁이가 흙과 만나 용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세요.







